

부록

—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22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틴아메리카 전체
GDP 증가율		5.2	2.9	2.4	7.5	3.1	2.7	3.7
1인당 GDP 증가율	% (연증가율)	4.0	2.2	1.7	7.2	1.9	1.5	2.8
소비자물가 상승률		94.8	5.8	12.8	13.1	7.8	8.5	6.8
명목 GDP	십억 달러	1,924	632	301	344	1,414	242	5,764
1인당 명목 GDP	달러	13,655	8,995	15,094	6,664	10,867	7,094	8,928
실업률(연평균)	%	7.5	9.3	7.9	11.2	3.3	7.7	7.0
수출	십억 달러	90.5	346.5	100.4	63.7	589.2	76.4	1,442.1
수입		80.0	312.0	98.5	72.6	617.3	57.0	1,471.4
무역수지		10.5	34.5	1.9	-8.9	-28.1	19.4	-29.3
외환보유고		38.7	325.5	37.8	56.3	202.1	74.0	866.7
경상수지	% (GDP 대비)	-0.3	-2.9	-7.8	-6.2	-0.9	-4.3	-1.7
총정부부채		79.0	77.1	38.8	60.3	39.8	30.3	51.2

주 | 명목 GDP, 1인당 명목 GDP는 IMF 통계 기준, GDP 증가율은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기준, 나머지 통계는 ECLAC 통계 기준.

출처 |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 국제통화기금(IMF),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22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2021년에 이어 세계 경제성장률(3.4%)을 상회하는 3.7% 성장을 달성함.

| 2년(2021~2022년) 연속 빠른 경기회복세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함.

| 산업 분야별로는 농업, 전력·가스·수자원, 교통 및 통신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함.

| 그러나 2022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6.7% 성장을 달성했던 2021년 보다는 낮은 성장(3.7%)에 그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금융조달비용 상승 등의 여파로 악영향을 받음.

| 대내적으로는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높은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성장세 둔화, 빠른 수입가격 증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입음.

:: 소지역별로는 카리브가 4.5% 성장으로 라틴아메리카 평균 성장률(3.7%)을 상회했으며, 남아메리카가 3.7% 성장을 달성함.

| 그에 반해 중앙아메리카 및 멕시코 경제는 3.3% 성장에 그침.

:: 국별로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 데 반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는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성장에 그침.

| 콜롬비아는 강한 고용 회복, 소비자 신용 증가에 힘입은 민간소비 확대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7.5%)을 시현했으며, 아르헨티나도 수출 및 소비 증대 효과에 힘입어 5.2% 성장을 달성함.

| 멕시코는 니어쇼오링 효과에 힘입은 높은 수출 증대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송금 유입 증가 등의 호재에 힘입어 3.1% 성장을 달성함.

| 브라질은 광업 생산 증가와 유가 상승에 힘입은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축소 및 고금리 등의 여파로 2.9% 성장에 그침.

| 페루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광업 생산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주택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7% 성장에 머물.

| 칠레는 구리 수출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재정지출 축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고금리 등의 여파로 2.4% 성장에 그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2.6	-2.1	-9.9	10.3	5.2
브라질	1.8	1.2	-3.3	5.0	2.9
칠레	4.0	0.8	-6.0	11.7	2.4
콜롬비아	2.6	3.2	-7.3	11.0	7.5
멕시코	2.2	-0.2	-8.0	4.7	3.1
페루	4.0	2.2	-11.0	13.6	2.7
라틴아메리카(b)	1.1	0.1	-6.8	6.7	3.7(a)

주 | (a)는 잠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 ECLAC, 각국 중앙은행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1인당 GDP 증가율은 2021년 5.7%에서 2022년에는 2.8%에 그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가 7.2%로 가장 빠른 1인당 GDP 증가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4.0% 성장으로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성장을 보임.

| 그에 반해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성장에 머물.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3.5	-2.9	-10.8	9.4	4.0
브라질	1.0	0.5	-4.0	4.3	2.2
칠레	2.6	-0.4	-6.8	11.1	1.7
콜롬비아	1.0	1.8	-8.0	9.9	7.2
멕시코	1.1	-1.3	-9.0	3.7	1.9
페루	2.2	0.6	-12.1	12.1	1.5
라틴아메리카(b)	0.2	-0.9	-7.6	5.7	2.8

주 | (a)는 ECLAC 잠정치, (b)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 ECLAC

2. 투자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GDP대비)은 전년대비 1%감소함.

| 그 결과, GDP대비 투자율은 2021년 20.6%에서 2022년 20.4%로 소폭 하락함.

:: 그러나 국별로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투자율(GDP대비)은 상승함.

| 2022년 브라질의 투자율은 전년대비 6.7% 하락한 18.1%를 기록함.

| 그에 반해 콜롬비아(전년대비 14.7%), 페루(7.7%), 멕시코(4.3%), 칠레(4.1%), 아르헨티나(3.5%) 투자율을 상승세를 보였음.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GDP대비) 중에서는 특히 칠레(25.4%), 페루(23.7%)가 라틴아메리카 지역 평균 이상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함.

| 그에 반해 브라질(18.1%)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밑도는 낮은 투자 수준을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16.6	13.9	16.1	20.2	20.9
브라질	15.1	15.5	16.1	19.4	18.1
칠레	24.2	25.0	21.1	24.4	25.4
콜롬비아	21.2	21.4	19.1	19.0	21.8
멕시코	22.7	21.2	18.8	20.7	21.6
페루	22.4	21.8	19.7	22.0	23.7
라틴아메리카	19.0	18.7	17.8	20.6	20.4

주 | (a)는 추정치
출처 | IMF

3.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 수출)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은 2021년(28%)에 이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그 신장세(20%)는 다소 둔화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은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에 힘입은 바 컸음. 전체 수출 확대의 70%가 수출 가격 증가에 기인함.

|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이 수출 물량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한 데 반해 석유 등 탄화수소 수출국(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인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수출증가는 가격 상승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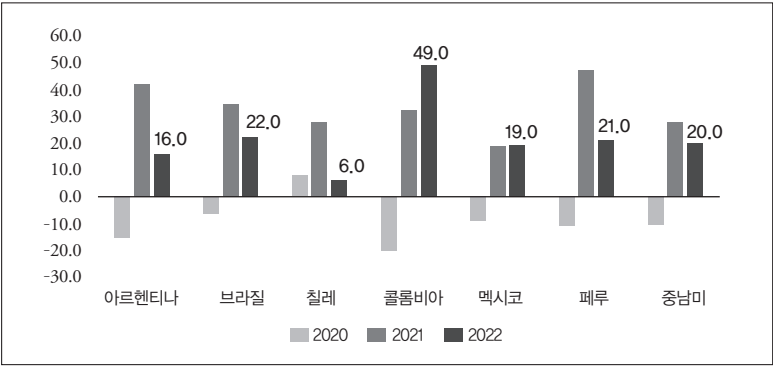
:: 소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수출이 20% 증가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증가율(16%)을 앞섬.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석유 수출국인 콜롬비아가 가장 빠른 수출 증가세(49.0%)를 달성했으며, 브라질(22.0%), 페루(21.0%)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보임.

| 그에 반해 칠레(6.0%), 아르헨티나(16.0%), 멕시코(19.0%)는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2,403억 달러 증가한 1조 4,421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5,892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 규모(라틴아메리카 총수출의 40.8% 비중)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3,465억 달러), 칠레(1,004억 달러), 아르헨티나(905억 달러), 페루(764억 달러), 콜롬비아(637억 달러)가 잇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61,801	65,156	54,946	77,987	90,465
브라질	239,537	225,800	210,707	284,012	346,494
칠레	75,200	68,763	74,086	94,677	100,357
콜롬비아	44,440	40,656	32,309	42,736	63,676
멕시코	451,083	460,939	417,323	495,090	589,157
페루	49,066	48,224	42,905	63,151	76,413
라틴아메리카(b)	1,075,071	1,053,089	940,988	1,201,863	1,442,134

주 | (a)는 전망치, (b)는 카리브 제외

출처 | ECLAC

나. 수입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은 수입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24.1% 증가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증가는 물량보다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동됨. 전체 수입 확대의 75%가 수입가격 증대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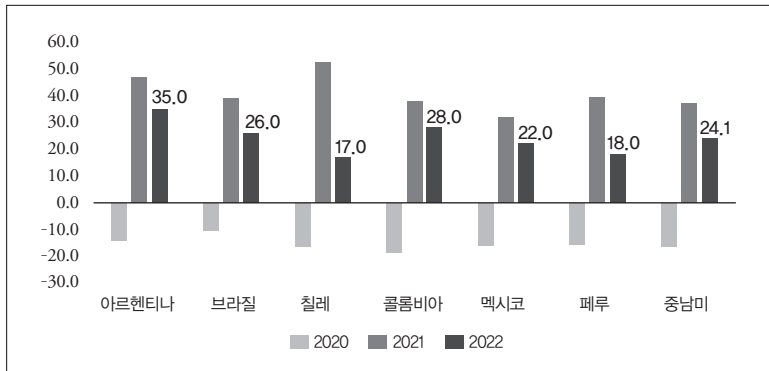
:: 소지역별로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이 27%, 남아메리카 지역의 수입이 26% 증가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빠른 수입 증가세(35.0%)를 보였으며, 콜롬비아(28.0%), 브라질(26.0%)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수입 증가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멕시코(22.0%), 페루(18.0%), 칠레(17.0%)는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의 수입 증가세를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입증가를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출처 | ECLAC

:: 높은 수입 신장세에 힘입어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입 규모는 전년 보다 2,862억 달러 증가한 1조 4,714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6,173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라틴아메리카 총수입의 42% 비중)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3,120억 달러), 칠레(984억 달러), 아르헨티나(800억 달러), 콜롬비아(726억 달러), 페루(570억 달러)가 잇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62,544	46,928	40,315	59,291	80,043
브라질	186,490	199,253	178,337	247,648	312,037
칠레	70,555	65,810	55,110	84,148	98,454
콜롬비아	49,584	50,708	41,179	56,719	72,601
멕시코	464,850	455,772	383,172	506,005	617,326
페루	41,870	41,106	34,709	48,317	57,015
라틴아메리카(b)	1,053,258	1,031,251	864,614	1,185,223	1,471,422

주 | (a)는 전망치, (b)는 카리브 제외
출처 | ECLAC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역조건은 수출 가격 증가세(14%)를 상회하는 수입가격 신장세(18%)로 전년비 4.7% 하락함.

| 그러나 교역조건은 수출상품의 종류와 소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자원수입국인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교역조건이 에너지 및 식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8.5% 하락한 데 반해, 자원 순수출국인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의 교역조건은 5.2% 개선됨.

|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에서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교역조건이 악화함.

- 특히 칠레(-9.9%), 브라질(-7.0%), 멕시코(-6.1%)의 교역조건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로 하락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교역조건 추이

(단위: 2010 = 100)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100.0	99.3	99.9	109.6	108.7
브라질	100.0	99.9	99.3	86.7	80.6
칠레	100.0	98.2	109.4	122.3	110.2
콜롬비아	100.0	98.6	83.2	99.9	118.1
멕시코	100.0	102.2	101.1	99.6	93.5
페루	100.0	98.3	107.3	119.9	115.6
라틴아메리카	100.0	100.0	100.6	100.7	96.0

주 | 2022년은 전망치
출처 | ECLAC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빠른 수입 증가세로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무역수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폭이지만 적자로 반전됨.

|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에서는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흑자국 중에서도 페루를 제외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743	18,228	14,631	18,696	10,422
브라질	53,047	26,547	32,370	36,364	34,457
칠레	4,645	2,953	18,976	10,529	1,903
콜롬비아	-5,144	-10,052	-8,870	-13,983	-8,925
멕시코	-13,767	5,167	34,151	-10,915	-28,169
페루	7,196	7,118	8,196	14,834	19,398
라틴아메리카	21,813	21,838	76,374	16,640	-29,288

출처 | ECLAC

:: 대외경제의 기초체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경상수지도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며 악화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GDP대비 경상수지는 전년보다 0.1%포인트 악화된 -1.7% 적자를 기록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GDP대비) 중에서는 칠레(-7.8%), 콜롬비아(-6.2%), 페루(-4.3%), 브라질(-2.9%)이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5.2	-0.9	0.8	1.5	-0.3(a)
브라질	-2.9	-3.6	-1.9	-2.8	-2.9
칠레	-4.5	-5.3	-1.7	-6.6	-7.8(a)
콜롬비아	-4.2	-4.6	-3.5	-5.6	-6.2
멕시코	-2.1	-0.4	2.1	-0.6	-0.9
페루	-1.3	-0.7	1.2	-2.3	-4.3
라틴아메리카	-2.7	-2.0	-0.2	-1.6	-1.7

주 | (a)는 추정치
출처 | IMF, 각국 중앙은행

4. 재정수지 및 정부 부채

:: 정부지출 축소와 재정수입 확대로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재정지출(GDP대비)은 22.6%로 전년(23.4%)보다 0.8% 포인트 감소함. 그에 반해 같은 기간 재정수입(GDP대비)은 19.2%에서 19.4%로 0.2% 포인트 개선됨.

| 그 결과, 2022년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2021년(4.2%) 보다 1.1% 포인트 개선된 3.1%를 기록함.

:: 그러나 소지역별로 재정수지 개선 정도는 다소 달랐음.

| 남아메리카에서 재정수지 개선은 재정지출 감소와 재정수입 증대 효과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었음.

- 2022년 남아메리카의 재정지출(GDP대비)은 전년대비 1.5% 포인트 감소한 24.1%를 기록했으며 재정수입은 0.4% 포인트 증가한 21.2%를 기록함.
- 그 결과,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4.8%에서 3.0%로 축소되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개선되었음.

|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포함)에서도 재정지출 감소와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감소했으나 그 개선 정도는 미미했음.

- 2022년 중앙아메리카(멕시코 포함)의 재정지출(GDP대비)은 0.2% 포인트 감소한 21.0%, 재정수입은 0.2% 포인트 증가한 17.7%를 기록함. 이에 따라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3.6%에서 3.3%로 0.3% 포인트 개선에 그침.

라틴아메리카 재정 지출·수입 및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항목	2019	2020	2021	2022
재정지출	21.4	24.6	23.4	22.6
재정수입	18.4	17.8	19.2	19.4
(명목)재정수지	-3.0	-6.9	-4.2	-3.1

출처 | ECLAC

::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부 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함.

| 2022년 9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총 정부(중앙정부 기준) 부채(GDP대비)는 평균 51.2%로 2021년 말 대비 1.9% 포인트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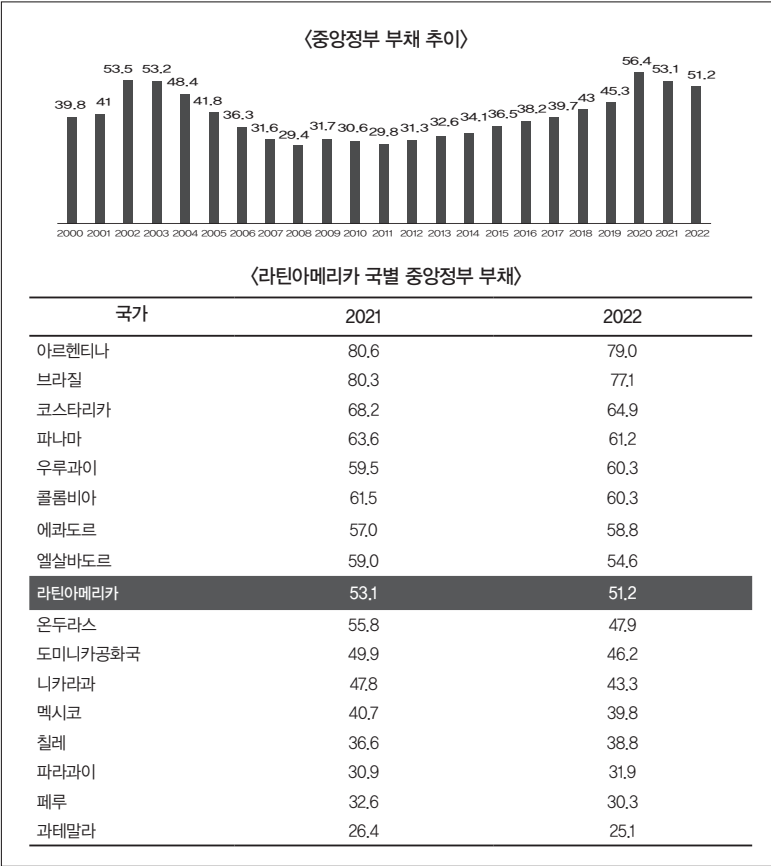
| 이러한 정부 부채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부 부채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국별(GDP대비)로는 아르헨티나(79.0%), 브라질(77.1%), 코스타리카(64.9%), 파나마(61.2%), 우루과이(60.3%), 콜롬비아(60.3%), 에콰도르(58.8%), 엘살바도르(54.6%)가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정부 부채 수준을 기록함.

| 그에 반해 과테말라(25.1%), 페루(30.3%), 파라과이(31.9%), 칠레(38.8%), 멕시코(43.3%)는 라틴아메리카 평균을 크게 밑도는 양호한 정부 부채 수준을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총 정부 부채 추이

(단위: GDP대비, %)



주 | 2022년은 9월 기준
출처 | ECLAC

5. 실업률

:: 봉쇄조치 완화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2년에는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실업률은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10.2%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9.3%, 2022년 7.0%로 하락함.

:: 2022년 실업률 개선은 분야별로는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힘입은 바 컸음.

| 도소매, 레스토랑 및 호텔업이 13.2%로 가장 많은 고용 증가를 기록했으며, 제조업(11.2%), 기초 서비스(10.5%), 건설(9.6%), 커뮤니티·사회·개인 서비스(7.3%) 등의 분야에서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음.

:: 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모두에서 실업률이 개선되어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 특히 그중에서도 페루(3.2% 포인트), 브라질(2.9% 포인트), 콜롬비아(2.5% 포인트)의 실업률 하락이 라틴아메리카 평균(2.3% 포인트)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평균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9.2	9.8	11.6	8.8	7.5
브라질	12.4	12.0	13.8	13.2	9.3
칠레	7.4	7.2	10.8	8.9	7.9
콜롬비아	9.7	10.5	16.1	13.7	11.2
멕시코	3.3	3.5	4.4	4.1	3.3
페루	6.6	6.6	13.6	10.9	7.7
라틴아메리카 (연말 기준)	7.9	7.9	10.2	9.3	7.0(a)

주 | (a)는 2022년 6월 말 기준
출처 | ECLAC,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Ⅲ. 금융 외환지표

1. 환율

::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오히려 2021년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선진국 및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데 반해,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선제적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 격차,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남아메리카 국가), △기록적인 해외송금 유입과 니어쇼오링의 특수 효과(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에 기인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의 통화가치가 상승함.

|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달러 대비)는 전년보다 72.1% 하락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상수지 악화로 콜롬비아의 페소화 통화가치도 두 자릿수(19.2%)의 약세를 면치 못함.

| 그에 반해 브라질의 헤알화(5.1%), 멕시코의 페소화(5.0%), 페루의 솔화(4.5%), 칠레의 페소화(0.4%) 가치는 상승세를 보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환율	2021년 대비 변동률(%)
아르헨티나	37.68	59.86	84.08	102.68	176,740	72.1
브라질	3.87	4.02	5.19	5.57	5,286	-5.1
칠레	694.02	752.08	710.00	851.10	847,800	-0.4
콜롬비아	3,247.03	3,282.76	3,419.50	4065.41	4,847.00	19.2
멕시코	19.64	18.93	19.90	20.49	19,4740	-5.0
페루	3.37	3.31	3.61	3.98	3.80	-4.5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지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지 상승)을 의미
출처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책금리는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2021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

| 당초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지속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금리는 아시아 신흥시장보다 800bp 높은 12%에 달함.

:: 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에서 물가상승 폭이 큰 칠레, 콜롬비아가 가장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

| 주요 6개국 중에서는 페루(7.5%)를 제외한 5개국이 두 자릿수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함.

| 국별 금리 수준은 아르헨티나가 75%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브라질(13.75%), 콜롬비아(12.0%), 칠레(11.25%), 멕시코(10.5%)가 이음.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59.25	55.00	38.00	38.00	75.00
브라질	6.50	4.50	2.00	9.25	13.75
칠레	2.75	1.75	0.50	4.00	11.25
콜롬비아	4.25	4.25	1.75	3.00	12.00
멕시코	8.25	7.25	4.25	5.50	10.50
페루	2.75	2.25	0.25	2.50	7.50
라틴아메리카(a)	13.96	12.50	7.79	10.38	21.67

주 | (a)는 6개국 단순 평균
출처 | ECLAC, 각국 중앙은행

3. 소비자물가상승률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의 여파로 2021년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6.8%(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단순 평균 기준 23.8%)를 기록함.

|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신속한 금리 인상 정책과 2022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플레이션은 진정세를 보임.

:: 상품별로는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보다는 교역재(tradable goods), 근원(core) 물가보다는 식품 및 에너지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역재 물가는 10.3% 상승한 데 반해 비교역재 물가는 4.8% 증가에 그침.

| 식품과 에너지 물가도 각각 11.6%, 14.2% 증가한 데 반해 근원 물가는 7.4% 상승에 머뭄.

:: 소지역별로는 식품 및 원유 등 자원수입국인 중앙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 남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6.3%를 기록한 데 반해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인플레이션은 8.1%를 기록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수리남 등 만성적 고인플레이션 국가 이외에 칠레,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주요 6개국 중 브라질(5.8%), 멕시코(7.8%), 페루(8.5%)는 한 자릿수 물가 방어에 성공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르헨티나	47.6	53.8	36.1	50.9	94.8
브라질	3.7	4.3	4.5	10.1	5.8
칠레	2.6	3.0	3.0	7.2	12.8
콜롬비아	3.2	3.8	1.6	5.6	13.1
멕시코	4.8	2.8	3.2	7.4	7.8
페루	2.2	1.9	2.0	6.4	8.5
라틴아메리카	3.0	2.9	2.9	6.6	6.8(a)

주 | (a)는 2022년 10월 기준

출처 | ECLAC, 각국 중앙은행

4. 국가위험도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위험도(JP Morgan의 EMBIG¹⁾ 기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2021년보다 상승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위험도는 9월 525bps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연말(11.15일) 들어 447bps로 개선됨.

| 그러나 이러한 국가위험도 수준은 2021년 말보다 66bps,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보다는 112bps 높은 것임.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의 국가위험도가 소폭 하락한 데 반해 나머지 국가들의 국가위험도는 상승함.

| 국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우루과이의 국가위험도(130bps)가 가장 낮았으며, 칠레(160bps), 페루(195bps)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국가위험도를 기록함.

| 그에 반해 극심한 정치경제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위험도(4만 5,000bps)를 보임. 채무디폴트 상황에 처해 있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도도 라틴아메리카 평균보다 약 5배 높은 수준(2,300bps)을 기록함.

1) EMBIG는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을 의미하며, 보통 이머징마켓채권 지수로 불림. 여기서 국가위험도는 EMBIG 채권 수익률과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국가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국가위험도 추이

(단위: bps, EMBI Global,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817	1,744	1,368	1,688	2,385
브라질	273	212	250	306	263
칠레	166	135	144	153	160
콜롬비아	228	161	206	353	391
멕시코	357	292	361	347	386
페루	168	107	132	170	195
라틴아메리카	568	346	386	399	447

주 | (a)는 11월 15일 기준

출처 | ECLAC

5. 주가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은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強)달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고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중에서 호실적을 거둔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됨.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의 선전은 낮은 주식 가격, 빠른 경기회복, 자원(상품)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함.

:: 전체적인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임.

|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페루의 주식시장이 실적 개선을 보인 데 반해 멕시코, 콜롬비아 주식시장은 침체를 보였음.

- 아르헨티나 Merval 주가는 미국 ADR에 상장된 주요 기업 주가의 호실적에 힘입어 외환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전년대비 140.6% 상승함.

- 칠레, 브라질, 페루 주가도 전년대비 각각 28.2%, 4.7%, 1.0% 상승함.

| 그에 반해 멕시코, 콜롬비아 주가는 전년대비 각각 -9.0%, -8.9% 하락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주가	2021년 대비 변화율(%)
아르헨티나 (MERV)	30,292	41,671	51,226	84,006	202,085	140.6
브라질 (BOVESPA)	87,887	115,645	119,017	104,822	109,734	4.7
칠레(GPA)	25,949	23,393	21,007	21,538	27,612	28.2
콜롬비아 (COLCAP)	1,325	1,662	1,437	1,411	1,286	-8.9
멕시코(PC)	41,459	43,657	44,066	53,272	48,463	-9.0
페루(LIMA) IGBVL	19,350	20,587	20,967	21,112	21,330	1.0

출처 | tradingeconomics.com(검색일자: 2023년 1월 30일)

6. 외환보유고

:: 2022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7.2% 감소한 8,667억 달러를 기록함.

| 이 같은 외환보유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외환보유고 수준은 2010~2019년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임.

:: 2022년 외환보유고 감소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을 사용했기 때문임.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정책금리를 중요한 통화수단으로 사용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 우루과이 등의 국가군에서 외환보유고 감소가 가장 컸음.

:: 국별로 외환보유고 규모는 브라질이 3,255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를 멕시코(2,021억 달러)가 잇고 있음.

|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라틴아메리카 전체 외환보유고의 60.9% 비중을 차지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a)
아르헨티나	65,806	44,781	39,387	39,662	38,676
브라질	374,715	356,884	355,620	362,204	325,546
칠레	39,861	40,657	39,200	51,330	37,784
콜롬비아	48,402	53,174	59,039	58,588	56,340
멕시코	176,384	183,028	199,056	207,745	202,135
페루	60,288	68,370	74,909	78,539	74,031
라틴아메리카	868,029	852,243	891,560	934,271	866,660

주 | (a)는 2022년 9월 말 기준
출처 | ECLAC

7. 국가신용등급

::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정치경제 상황 불안을 반영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세를 보임.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

| 그에 반해 대표적으로 코스타리카는 경제 상황 개선을 반영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됨.

::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7개국이 3개 국제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그중에서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5개국임.

| 콜롬비아의 경우 2020년까지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S&P와 Fitch가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강등함.

|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경우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로부터만 유일하게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투자등급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23년 3월 31일 기준)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과테말라	Ba1 부정적	2020. 11. 10	BB- 안정적	2017. 10. 18	BB- 안정적	2020. 04. 03
도미니카 공화국	Ba3 안정적	2017. 07. 20	BB- 안정적	2021. 12. 8	BB 안정적	2023. 02. 16
니카라과	B3 안정적	2020. 02. 14	B+ 안정적	2016. 02. 11	B- 부정적	2020. 06. 17
멕시코	Baa1 부정적	2020. 04. 17	BBB 안정적	2022. 07. 06	BBB- 안정적	2020. 04. 15
베네수엘라	C 안정적	2018. 03. 09	SD 부정적	2017. 11. 14	NR 매우 취약	2019. 06. 27
볼리비아	B2 안정적	2020. 09. 22	B+ 부정적	2021. 03. 24	B- 부정적	2023. 03. 14
브라질	Ba2 안정적	2018. 04. 09	BB- 안정적	2020. 04. 06	BB- 안정적	2022. 07. 14
아르헨티나	Ca 부정적	2020. 04. 03	CCC+ 안정적	2020. 09. 07	CCC-	2022. 10. 26
에콰도르	Caa3 안정적	2021. 02. 06	B- 안정적	2020. 09. 01	B- 안정적	2020. 09. 03
엘살바도르	Caa2 부정적	2022. 05. 04	B- 안정적	2018. 12. 28	CC	2022. 09. 15
온두라스	B1 안정적	2017. 09. 22	BB- 안정적	2017. 07. 18	B+ 안정적	2020. 09. 03
우루과이	Baa2 안정적	2017. 07. 13	BBB 안정적	2017. 05. 30	BBB- 안정적	2019. 06. 27
칠레	A1 부정적	2020. 08. 25	A 안정적	2021. 03. 24	A- 안정적	2020. 10. 15

국가	Moody's		S&P		Fitch	
	등급	일자	등급	일자	등급	일자
코스타리카	B2 부정적	2020. 06. 02	BB- 안정적	2023. 03. 02	BB- 안정적	2023. 03. 02
콜롬비아	Baa2 부정적	2020. 12. 03	BB+ 안정적	2021. 05. 19	BB+ 안정적	2021. 07. 01
트리니다드 토바고	Ba1 부정적	2020. 05. 22	BBB- 안정적	2020. 03. 26		
파나마	Baa2 안정적	2021. 03. 21	BBB 안정적	2020. 11. 24	BBB- 안정적	2022. 01. 28
파라과이	Ba1 안정적	2016. 06. 21	BB 안정적	2016. 06. 15	BB+ 안정적	2019. 12. 06
페루	A3 부정적	2021. 05. 21	BBB+ 안정적	2013. 08. 19	BBB 부정적	2022. 10. 20

주 | 음영으로 표시한 부문은 투자적격 등급을 의미함.
출처 | Moody's, S&P, Fitch 홈페이지